

2019년도  
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 
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

2020. 4.

한 국 은 행

## - 목 차 -

(한국은행 소관 : 20건)

|   |    |
|---|----|
| 1. 경기둔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리인하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|
| 2.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한 신중한 금리정책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  |
| 3.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  |
| 4. 전자지급수단의 확대 및 접근성 향상 노력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  |
| 5.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·분석 강화 필요 .....   | 6  |
| 6.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금융·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|
| 7. 통화스와프의 체결국 다양화 노력 필요 .....   | 8  |
| 8. 외환보유액의 운용·관리 개선 필요 .....   | 9  |
| 9. 저금리·저물가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1 |
| 10.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 .....   | 12 |
| 11.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3 |
| 12.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4 |
| 13. 원활한 화폐수급 및 적극적인 화폐관리정책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|
| 14.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강화 및 정책대안 제시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6 |
| 15.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 .....  | 17 |
| 16. 조직·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 .....  | 18 |
| 17.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지연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|
| 18.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·연구 수행 필요 ....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 |
| 19. 독도 기념주화 발행 검토 필요 .....  | 23 |
| 20. 연구보고서 발간과정에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<br>내용수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 ..... | 24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1. 경기둔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금리인하 필요</p> <p>실물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성장 잠재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과 더불어 선제적이고도 과감한 금리인하를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것</p> | <p>□ 한국은행은 거시경제흐름과 금융안정 상황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가운데,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</p> <p>○ 2019년 중에는 글로벌 무역분쟁,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 대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경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2019.7월과 2019.10월 각각 기준금리를 0.25%p 인하</p> <p>○ 2020.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 심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0.5%p 인하</p> <p>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 및 자금사정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도 0.50~0.75%에서 0.25%로 인하</p> <p>□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금융·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|--|--|
| 한국은행 | <p>2. 다른 나라 사례를 참조한 신중한 금리정책 필요</p> <p>기준금리가 최저수준에 도달하여 추가 인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낮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지속되었던 주요국 사례를 참조하여 금리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그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금융안정 상황의 변화를 함께 고려하면서 신중하게 완화정도를 조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그러나 2020.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인 0.75%로 0.5%p 인하하였음</p> <p>○ 이는 코로나19의 국내외 확산의 금융·경제에 대한 파급영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만큼</p> <p>성장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</p> <p>○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도 저금리 장기화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</p> <p>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사상 최저수준으로 잇따라 인하하였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여 거시경제의 하방리스크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갈 계획</p> <p>○ 이 과정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와 파급영향, 금융안정 상황 변화 및 주요국 정책대응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임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3.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정책 필요</p> <p>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,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유동 자금이 몰릴 우려가 있으므로 부동산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검토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차입유인이 커지고 수익추구 성향 (search for yield)이 강화되는 등 금융 안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그간 정부·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해 왔으며</p> <p>그 결과 가계부채는 2017년 이후 증가세가 뚜렷이 둔화*되고 있음</p> <p>* 가계부채 증가율(%), 전년동기대비, 가계신용 기준) 2016년 11.6 → 2017년 8.1 → 2018년 5.9 → 2019년 4.1</p> <p>○ 다만, 현재 가계의 레버리지와 부동산 시장으로의 신용공급이 이미 크게 확대된 상황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정책 기조를 지속해 나갈 필요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연 4회(3·6·9·12월) 개최되는 금융통화위원회의 「금융안정회의」에서 부동산 시장 및 관련 대출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금융안정보고서(6·12월, 국회 제출), 보도자료(3·9월)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해 조기경보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왔음*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한국은행 |                        | <p>*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, 부동산 임대가구의 재무건전성(2019.3월), 보증부 가계대출시장 현황 및 잠재 리스크(2019.6월),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현황 및 평가, 최근 미분양주택 동향 및 시사점(2019.12월)</p> <p>□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및 위험자산으로의 자금유입 확대가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음</p> <p>○ 또한 「가계부채관리협약체」, 「거시경제금융회의」 등에 참여하여 정부·금융당국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한편 필요시 긴밀히 협의하여 정책수단을 강구해 나가겠음</p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|---|
| 한 국 은 행 | <p><b>4. 전자지급수단의 확대 및 접근성 향상 노력 필요</b></p> <p>모바일 직불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관련 기술을 선도하고, 고연령층과 저소득층의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(의장: 한국은행 부총재)는 모바일 기기를 활용한 결제서비스 편의 제고와 결제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는 모바일직불(현금카드)서비스 사업을 은행권 공동으로 추진* 중에 있음</p> <p>* 2020년 상반기 중 총 15개 금융기관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</p> <p>○ 동 서비스는 QR코드·바코드* 등을 이용한 결제, CD/ATM 거래, 거스름돈 계좌입금 및 출금 서비스가 가능</p> <p>* 모바일직불(현금카드)서비스를 위한 QR코드·바코드 표준 제정(2018.12월,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의결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현재 수행 중인 대국민 경제교육의 일환으로 현금사용률이 높은 고연령층 등에 대한 전자지급수단 활용 교육을 포함할 계획임</p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---|--|--|
| 한 국 은 행 | <p>5.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·분석 강화 필요</p> <p>암호자산에 대한 정의, 특성과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연구·분석을 강화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암호자산에 대한 연구·분석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</p> <p>○ 암호자산의 확산 가능성에 대하여 모니터링하고 거시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·분석을 수행*</p> <p>* G7 워킹그룹의 스테이블코인 보고서(2019.10월)</p> <p>○ 주요국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와의 관련 논의에 적극 참여*</p> <p>* 스위스금융감독청(FINMA) 주최 「Libra College」 참석(2020.1월)</p> <p>○ 암호자산을 포함한 민간 디지털화폐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연구도 강화*</p> <p>* 주요국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대응 현황(2020.2월)</p> <p>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 도입 추진 방안(2020.3월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암호자산 관련 시장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</p> |

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|--|--|
| 한국은행 | <p>6.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한 금융·외환시장 안정화 대책 필요</p> <p>일본수출규제, 미중무역분쟁, DLS 손실 등 대내외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금융 불안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·외환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대응하여 금융·외환시장 안정 노력을 지속하여 왔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미·중 무역분쟁, 일본 수출규제, 코로나19 확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외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모니터링</li> <li>○ 시장 불안요인 발생 시 「통화·금융 대책반 회의」를 개최하여 비상점검체제를 가동</li> <li>○ 특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 금융·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미연준과의 통화스왑 계약 체결, 무제한 유동성 공급조치* 도입 등 금융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</li> </ul> <p>*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, RP 대상 기관·증권 확대 등(2020.4.1일 시행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국내 금융·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 시행하도록 하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|--|--|
| 한국은행 | <p><b>7. 통화스와프의 체결국 다양화 노력 필요</b></p> <p>국내 외환·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노력을 지속할 것</p> | <p>□ 한국은행은 그동안 금융안전망 강화 및 원화 국제화 제고 등을 위해 다양한 범주의 국가들과 여러 형태의 통화스와프계약을 체결하여 왔음</p> <p>○ 주요 기축통화국 및 선진국(미국, 캐나다, 스위스, 호주), 주요 교역국 및 자원부국(중국, 인도네시아, 말레이시아, UAE)과는 양자간 통화스와프(자국통화)을, ASEAN+3 국가들과는 다자간 통화스와프(미달러화)을 체결 중임</p> <p>— 2020.1~3월에는 말레이시아, 호주 및 인도네시아와 통화스와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이중 IMF 준비통화국인 호주와는 계약규모를 20% 확대(100억 호주달러 → 120억 호주달러)하였음</p> <p>— 2020.3.19일에는 미 연준과 600억 달러(2008년 300억 달러) 규모의 계약을 재체결하였음</p> <p>○ 특히 연준과의 통화스와프 재체결은 코로나19로 인한 외화유동성 부족상황을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</p> <p>□ 향후에도 한국은행은 규모, 체결국 및 방법 등에 있어 통화스와프계약을 더욱 다양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<b>8. 외환보유액의 운용·관리 개선 필요</b></p> <p>외화자산 운용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, 수익률 공개 및 국내 자산운용사 위탁비율 제고 등 외환보유액의 운용·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할 것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의 유동성 확보 및 가치 보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자 노력해 왔음</li> <li>○ 2000년대부터 투자 상품 및 통화를 다변화하여 운용수익률을 제고</li> <li>○ 세계은행의 연례 자문, 선진국 중앙은행과의 운용경험 공유, 위탁운용을 통한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운용 노하우 습득 등을 통해 운용역량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 운용·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여 외화자산 운용수익률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운용 관련 정보를 대외에 공개하고 있음</li> <li>○ 2007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에 운용자산의 상품 및 통화별 구성 비중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체계, 리스크 관리, 위탁운용 현황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오고 있음</li> <li>○ 아울러 현재 국회에 한해 외화자산 운용수익액을 공개하고 있으며, 수익률의 경우 공개 시 부작용을 감안하여 비공개 방침을 유지하고 있음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한편 한국은행은 외화자산 운용 시 국내 금융기관을 활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음</li> </ul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한 국 은 행 |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2년 국내 자산운용사에 중국 주식의 운용을 위탁하였으며, 이후 단계적으로 위탁 기관 수 및 규모를 확대하였음</li> <li>○ 2019년에는 2개 운용사를 선정하여 선진국 주식의 운용을 위탁함으로써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규모를 더욱 확대하였음</li> <li>□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이 우리나라 최종 대외지급준비자산으로서 갖는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외환보유액 운용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국내 자산운용사에 대한 위탁비율을 제고해 나가는 등 외환보유액의 운용·관리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</li> <li>○ 국제금융시장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자산운용으로 수익률 제고를 도모하는 한편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</li> <li>○ 중장기적 시계에서 위탁 규모 및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 자산운용사의 운용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음</li> </ul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---|--|--|
| 한 국 은 행 | <p>9. 저금리·저물가에 대응한 물가안정목표제 운영 필요</p> <p>디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, 저금리·저물가 기조하에서 물가안정목표제의 개선 방향 또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</p> | <p>□ 한국은행은 2019.7월 및 10월 성장 및 물가의 하방위험 증대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각각 0.25%p 인하하였으며, 2020.3월에는 코로나19 확산의 부정적 파급영향에 대응하여 기준금리를 0.5%p 인하하였음</p> <p>○ 앞으로 한국은행은 성장 및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해 나가는 한편, 물가안정목표제의 운영 개선사항을 점검해 나갈 계획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<b>10. 경제성장률 전망의 정확도 제고 필요</b></p> <p>미·중 무역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를 전망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2019년 성장률 전망치를 3차례에 걸쳐 조정하였는데, 앞으로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해당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경제전망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</p> <p>○ 그러나 미·중 무역분쟁, 코로나19의 확산과 같은 예상치 못한 큰 외부충격으로 인해 주요 경제변수의 실적치가 전망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이에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</p> <p>○ 경제전망의 정도 제고를 위해 전망 발표시기를 조정하고 전망시계도 연장</p> <p>— 2019년 4/4분기부터 경제전망 발표시점을 기존의 ‘1·4·7·10월’에서 ‘2·5·8·11월’로 변경하고, 익익년도 전망을 종전보다 2개월 앞당긴 매년 11월에 발표</p> <p>* 전분기 GDP실적치(속보)와 전월 고용지표 등이 추가로 이용 가능해짐에 따라 전망 정도 제고에 유리</p> <p>○ 대내외 충격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, 이러한 구조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분석모형을 개선·개발</p> <p>○ 정부, 학계, 금융시장 전문가 등 행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채널을 적극 활용하고,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은행 전망 담당자들과의 네트워크 구축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및 이에 대응한 각국 정부의 봉쇄조치와 같은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전망의 정확성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갈 것임</p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|---|
| 한 국 은 행 | <p><b>11.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</b></p> <p>정부 고위인사들의 기준금리 관련 발언 자제,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등 한국은행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독립적·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독립성 제고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음</p> <p>○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거시경제여건과 금융·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</p> <p>○ 금융통화위원회 구성방식 변경 관련 「한국은행법」 개정안*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</p> <p>* 정우택의원 대표발의(금융통화위원 추천기관 변경 등, 2018.3월), 서형수의원 대표발의(금융통화위원 수 및 추천기관 확대 등, 2018.10월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독립성 제고를 위한 제도 조사·연구와 의견 개진에 힘쓰도록 하겠음</p> <p>○ 바람직한 개선방안 제시를 위해 주요 선진국 사례를 꾸준히 조사·연구하고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-|---|
| 한국은행 | <p><b>12.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 강화 필요</b></p> <p>위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,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유도 및 지원 한도 확충, 신성장·일자리 지원 확대 등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융기관별 위규 대출 점검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확대(2019.6월)</li> <li>○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,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(0.5~0.75%)를 0.25%로 인하하고 총 한도를 5조 원(25조 원 → 30조 원) 증액(2020.3월)</li> <li>○ 「신성장·일자리 지원 프로그램」의 한도를 두 차례에 걸쳐 총 5조 원(6조 원 → 11조 원) 증액하여 소재·부품·장비기업, 창업기업 및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(2019.10월, 2020.3월)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뒷받침하고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</p> <p>위규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계획임</p> |

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|--|--|
| 한국은행 | <p><b>13. 원활한 화폐수급 및 적극적인 화폐관리정책 필요</b></p> <p>신권발행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, 동전교환의 편의성 확대 등 원활하게 화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, 올바른 화폐보관 및 사용습관이 정착되도록 한국은행 차원에서 적극 홍보하고 노력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화폐수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동전교환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원활한 화폐수급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음</p> <p>○ 거시경제, 지급결제 여건 변화가 화폐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꾸준히 점검하고 주요국의 화폐수요 예측사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화폐수요 전망에 반영</p> <p>○ 금융기관들과 안전하고도 원활한 화폐수급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이 對국민 동전교환 서비스를 적극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</p> <p>○ 동전거래가 필요한 경제주체 간 자체적으로 동전을 교환할 수 있도록 적극 중개하는 동시에 거래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대규모 동전교환 수요 등에 대해서는 직접 교환(수시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아울러 ‘돈 깨끗이 쓰기’ 홍보물 제작·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의 화폐사용 습관 개선을 도모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적정량의 신권이 시중에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, 국민들의 동전교환 편의성 제고와 올바른 화폐사용 습관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|---|--|
| 한국은행 | <p><b>14.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조사·연구 강화 및 정책대안 제시 필요</b></p> <p>한국은행이 주요 경제 현안 및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 등에 대하여 조사·연구를 강화하고,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·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</p> <p>○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, 코로나19 확산, 저물가 현상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, 그 경제적 영향을 분석*</p> <p>* 반도체 수출 회복 가능성 평가(통화신용정책보고서, 2019.12월)<br/>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(통화신용정책보고서, 2020.3월)<br/>글로벌 요인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- 추세 인플레이션 분석을 중심으로(조사통계월보, 2019.10월)<br/>근원물가 상승률 둔화의 배경 및 시사점(통화신용정책보고서, 2019.12월)<br/>유량접근법을 활용한 노동시장 전망모형(조사통계월보, 2019.11월)<br/>최근 민간소비 변동성 축소의 원인 및 함의(조사통계월보, 2020.2월)</p> <p>○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에 따른 생산성 둔화, 잠재성장률 하락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,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*</p> <p>* 하향취업의 현황과 특징(BOK 이슈노트, 2019.12월)<br/>산업 간 노동이동 경직성의 거시경제적 영향(조사통계월보, 2019.12월)<br/>산업 간 노동력 배분의 효율성 측정 및 평가(BOK 이슈노트, 2020.1월)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주요 경제현안과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지속하는 한편, 정책대안 제시에도 노력할 것임</p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|---|
| 한 국 은 행 | <p>15. 과도한 복리후생 개선 필요</p> <p>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과도한 복리후생과 유급휴가제도 등을 개선하고, 이 과정에서 노조와 원만히 협의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지적사항 중 일부를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무원 수준을 감안하여 재해부조금 지급기준 및 지급률 조정</li> <li>○ 특별휴가(추가보상)를 보유한 직원들의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를 확대</li> <li>○ 청원휴가 사유 축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— ① 형제자매 결혼, ② 탈상, ③ 회갑 및 칠순 사유를 폐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에 따른 청원휴가 일수도 축소</li> </ul> </li> </ul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사합의 노력을 통해 복리후생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<b>16. 조직·인력 운영의 효율화 필요</b></p> <p>국제금융기구에서의 인력 파견 확대, 자체 보안 인력의 역량강화 등 조직·인력 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것</p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한국은행은 IMF, WB, BIS 등 여러 국제금융기구에 한국은행의 우수 인력을 파견해 왔으며 파견처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</li> <li>○ 다만, 국가별 쿼터 등 국제금융기구가 수용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어 파견을 확대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음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 자체 보안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내외 다양한 정보보호 전문교육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음</li> <li>○ BIS 개최 사이버보안 세미나(2018, 2019년) 및 사이버공격방어 훈련 참가(2019년)</li> <li>○ 해외 중앙은행, 국가정보원, 외부 전문기관 주관 세미나 및 연수 참여(수시)</li> <li>○ 금융기관, 외부 전문가 등과의 정보보안 연구 소모임 활성화</li> <li>○ 정부, 외부 전문기관, 학계, 보안업계 전문가 등과의 소통 확대</li> <li>○ 사이버보안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(수시)</li> <li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하는 한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파견처를 적극 발굴하고 우수 인력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국제금융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의견 개진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</li> </ul> |

| 구 분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또한 첨단화·지능화되는 사이버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, 훈련 및 국내·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체인력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음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----|--|--|
| 한 국 은 행 | <p>17. 한국은행 통합별관 신축 지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필요</p> <p>조달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통합별관 신축이 지연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조달청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</p> | <p>□ 2019.11월 조달청이 시공사와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.12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시작되었음</p> <p>○ 사업 지연으로 발생한 지출에 대해서는 손해규모, 청구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겠음</p> |

| 구 분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|--|---|
| 한국은행 | <p>18. 지역 상황에 맞는 지역본부의 조사·연구 수행 필요</p> <p>지역별 경제력과 인구·산업구조 등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역본부가 적절한 조사·연구를 수행하고 조사·연구 과정에서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것</p> | <p>□ 한국은행 지역본부는 통화신용정책의 효과적 수행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조사연구의 질적수준을 강화하고 시의적절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</p> <p>○ 우선 지역경제 동향 및 지역 주력 산업*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 4회 「지역경제보고서」로 발간(3, 6, 9, 12월)</p> <p>* IT·석유화학·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, 운송·관광 등 전국 경기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 등</p> <p>○ 또한 지역별로 주요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*를 통해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여 정부 관련부처, 지방자치단체, 지역언론 등에 제공</p> <p>* 포항지역 수소산업 육성방안(2019.10월), 강원도 바이오산업 현황과 성장방안(2019.10월),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 제고를 위한 지역경쟁력의 일자리 효과 분석(2019.10월), 인천지역 항공제조업 실태 분석 및 시사점(2019.10월), 대전·세종·충남지역 인구 유출입 현황 및 특징(2019.12월), 전남지역 농업 현황 및 경쟁력 제고 방안(2020.1월), 온라인쇼핑 성장이 지역 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- 부산지역을 중심으로(2020.1월) 등</p> |

| 구 분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아울러 기업경기조사, 소비자동향조사,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, 기업경영분석 등 지역경제 동향 파악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기초가 되는 각종 통계를 편제하여 발표</li> <li>□ 앞으로도 지역별 경제력과 인구·산업 구조 등 지역상황을 반영한 조사 연구를 한층 강화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음</li> <li>○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 내 다양한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연구가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연구주제 선정부터 결과의 활용까지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음</li> </ul> |

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|---|
| 한 국 은 행 | <p><b>19. 독도 기념주화 발행 검토 필요</b></p> <p>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촉발하기 위하여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상징성 등을 감안하여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검토해 볼 수 있겠으나</p> <p>실제 발행 여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기념주화 발행의 적합성과 여러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</p> |

| 구 분     | 시정·처리요구사항<br>(건의사항 포함)   | 시정·처리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|
|---------|--|---|
| 한 국 은 행 | <p>20. 연구보고서 발간과정에서의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 수정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필요</p> <p>최저임금 영향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이 발간 단계에서 수정되었는데 이는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, 당시 경위를 파악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</p> | <p><input type="checkbox"/> (발간경위)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외부연구용역과 BOK경제연구 발간의 별개의 두 과정을 수행한 바 있음</p> <p>○ 외부연구용역 결과를 반드시 BOK경제연구로 발간할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분석내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</p> <p>○ 저자들은 BOK경제연구 발간을 위한 익명심사 과정에서 익명심사자의 요구사항*을 반영하기 위해 상호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**</p> <p>* 2010~2016년 중의 일반적 상황을 대상으로 한 추정결과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시기에 적용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 기간을 확장하거나 시사점을 수정</p> <p>** 시사점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연구의 한계를 적시</p> <p><input type="checkbox"/> 앞으로도 발간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여 신뢰성 높은 연구결과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임</p> |